

가을 편지

자유기고가 김동정

그리고 보니 참 많은 시간이 흘러갔군요. 또 한번의 가을을 맞으면서 잡을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숙절함이 온몸으로 전해옵니다. 현실이라는 틀에 얽매어 참 바쁘게 살아온 나날이었습니다. 누군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봄과 여름 내내 그토록 왕성하던 나무와 풀과 꽃들도 이제는 자신을 갈무리해야 하는 때입니다. 길가에 핀 저 들국화도 머잖아 그 청초한 모습을 감추겠지요. 대자연의 순리는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채우고 비우는 일을 씩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지도 많은 해가 지나갔습니다. 사랑도 연민도 이상도 열정도 시간의 흐름 앞에 조금씩 소멸되는 느낌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나 봅니다. 이 가을,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만이 뇌리를 가득 채웁니다. 며칠 굶은비가 오락가락하더니 오늘은 보드라운 햇살이 충만한 하루였습니다. 가을 향기에 취해 도심의 거리를 무작정 떠도는 기분이 썩 괜찮았습니다. 마치 그대가 곁에 있더라도 한 것처럼 천천히 천천히 걸었습니다. 셋노략게 물

든 은행잎을 밟으며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기는 연인들을 보면서 지난 가을을 생각했지요.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우리 둘이 걷던 그 오솔길이 기억나는지요? 가을 햇살에 몸을 맡긴 채 어느 날 신촌역에서 교외 선을 타고 문산 나들이를 간 적이 있지요. 차창으로 펼쳐지는 산천은 정말이지 아름다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풍경을 도화지에 옮겨 그리고 싶었으니까요. 들판은 갈색으로 출렁거렸고, 울긋불긋 물들어가는 산자락은 길 떠난 자들을 줄곧 손짓했습니다. 논둑 길을 누비고 다니며 메뚜기를 잡는 아이들과 논 한가운데 서서 새떼를 쫓는 허수아비, 알알이 벌어진 밤송이를 터는 마을 사람들, 잘 여문 해바라기가 하늘을 향해 손을 벌린 모습은 가을이 절정에 달했음을 알려 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 풍경 속에 오래도록 몰입해 있었지요. 오랜 침묵은 문산땅에 이르러서야 깨졌습니다. 문산역 플랫폼에서 즐거운 표정을 짓던 그대의 모습이 아련합니다.

저녁을 먹고 잠깐 동네 공원에 나갔다 왔습니다. 가을 깊은 공원은 아이들의 차지였습니다. 웃음을 파

고드는 선선한 바람에 몸을 사리기도 했지만 아이들의 재잘거림을 듣고 있자니 꼭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 이더군요. 밤 하늘에 아롱대는 별빛은 또 어땠고요. 저를 가만히내려다보고 있는 그 별에게 소망을 빌었 지요. 아무리 삭막하고 버거운 사람살이라지만 조감(鳥瞰)하기에 따라서는 따뜻한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뻐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객지 생활을 시작한지도 어느덧 이십여 년이 가까워 옵니다. 각박한 일상을 떠나 가끔 다녀오기도 합니다만. 홀로 남아계신 어머니를 뵈 때는 자식된 도리를 못해 드리고 있다는 죄책감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고향의 바다가 보고 싶습니다. 마약 들어온 고깃배에서 풀어놓은 생선 냄새도 맡고 싶고요 해변을 따라 길게 늘어선 솔숲이며 온빛 햇살에 반짝이는 모래사장에 벌렁 드러누워도 보고 싶습니다. 산과 산, 강과 들이 어깨를 나란히 한 내 고향집, 마당가에 서 있는 감나무며 배나무, 닳나무, 석류나무는 언제 봐도 등적하지요. 새색시처럼 수줍음을 잔뜩 머금은 흥시며 자잘하게 매달린 밤송이, 입을 지긋이 벌린 석류는 가을철 우리들의 먹을거리였지요. 고향집 뒷산을 붉게 물들였던 단풍은 올해도 예외가 아닐 테지요. 내 나이 서른 하기도 중반을 넘어선 지금,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순수한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언젠가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옛일은 쉽게 잊혀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뇌리에 또

렸이 각인된 것만 빼놓고는요 우리가 우연히 만나,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젊은 날의 열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세월이 흘러도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지금에서 고백하지만 한때 저는 우리가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애뜻한 사랑을 나누었던 하고 바랐습니다. 한 때의 광기 어린 집착은 때로 삶의 자양분이 되기도 하지요. 이제 그대가 내 곁을 떠난 마당에 이런 주책스런 고백은 메아리 없는 함성이 돼버렸습니다.

긴장의 연속인 바쁜 도시 생활이지만 저는 요즘 될 수 있으면 자연과 많이 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혼탁한 마음을 행구어주는 것은 역시 자연의 품박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요. 새소리에 잠을 깨는 이른 아침이면 저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산에 오르곤 합니다. 그곳에서 저는 부지런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지요. 이른 아침 산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표정이 맑고 선했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네면 환히 웃으며 답례를 보내와서 마음이 호뭇합니다.

푸르던 산빛이 노랗게 맞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다가올 인고의 계절을 위해 마지막 한 잎까지 떨구어버리고 긴 동면(冬眠)에 들어가야 하는 자연의 생존 법칙이 엄숙함을 전해줍니다.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도 가을 냄새가 묻어납니다. 매연과 콘크리트숲에 둘러싸여 있는 나무들도 매년 이맘때쯤이면 어김없이 이파리를 떨구고 빈 가지로 겨울을 날 준비를 서두릅니다.

가을을 가을답게 하는 것은 역시 낙엽이 아닐까요? 낙엽발을 밟으며 가을을 얘기하는 연인들의 모습을 보면 거친 마음이 순해지지요. 고단한 삶을 잠시 잊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지요.

도시를 벗어나 교외로 나가보면 가을색이 한층 짙습니다. 가끔이 펼쳐진 들판을 보아도 울망졸망 엷디어 있는 산을 보아도 풍성함이 가득합니다. 결실의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연은 그리움이고 감동입니다. 며칠 전 신문을 뒤적이다 참 산뜻한 풍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집 마당에서 할머니가 빨간 고추를 널어 말리는 광경이었는데, 그 향수가 머리 속을 떠나지 않네요.

고향의 어머니가 생각나는 것도 어쩔 수 없지요.

가을은 어쩌면 시련의 계절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하느라 바쁘고, 안으로 고독을 삭여야 하는 생명들은 갑자기 풀려든 상실감에 몸을 떨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과정은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삶의 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을은 그래서 누구에게나 많은 가르침을 주는 계절이지요.

지금은 밤이 깊은 시간입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이 잔잔한 여운을 주고 있습니다. 이따금 늦은 귀기를 서두르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만이 또렷이 들려옵니다. 행복한 삶 이루시길 바랍니다.

